

웅진케미칼, 1100억원 채무 상환

3개 금융기관과 리파이낸싱 ... 2년 연속 흑자로 대외신용도 높아져

웅진케미칼이 110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게 됐다.

웅진케미칼은 4월23일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서 SC제일은행, 경남은행, 부산은행 등 3개 금융기관과 1100억원의 리파이낸싱(Refinancing)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.

2008년 4월 웅진케미칼이 산업은행, 농협,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채무상환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웅진 관계자는 “워크아웃 졸업 이후 2년 연속 경상이익을 흑자로 달성하는 등 웅진케미칼의 대외신용도가 높아져 이번 리파이낸싱이 성공적으로 추진됐다”며 “기존 대출금 대비 약 1.6% 정도의 이자율 인하 효과를 보게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4/23>